

사남매

#사남매는 오늘도 시끌벅적!

사남매가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다가 봄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제안한다. 여름, 가을은 신나서 벌칙까지 정하는데.. 벌칙은 모래 더미에 빠지기! 첫 술래는 봄이. 누나가 뒤돌아섰을 때, 겨울이가 여름이 가을이를 모아 작당 모의 중이다. 그리고 그걸 옆에서 바라보며 웃는 겨울이. 봄이 “피었습니다!” 소리와 함께 돌아보니... 겨울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어디갔냐며 묻자 희미하게 웃는다. 일단 찾는게 중요해 미끄럼틀 쪽으로 다가가는 순간, 우다다 소리가 들려온다. 설마..?! 하며 뒤돌려는 그때 툭 소리와 함께 봄이가 넘어간다. 범인은 여가케미! 하며 일어나자 이번엔 여가케미가 빠져버린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겨울이의 사악한 미소가..보였다. 설마..이번일의 흑막은 겨울이었나??

상황파악을 하던 중 여가케미가 일어나며 소리친다. “아 이겨울!! 너 뭐해!!” 아무래도 겨울이 배신&흑막 이었나보다..겨울이 도망치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잡히면 너도 빠진다는 여가케미.. 이 평화? 로운 한판 승부는 어떻게 끝날까?

#여름이의 비밀 프로젝트!

어느 날, 사남매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여름이가 반찬을 먹다 갑자기 볼을 잡았다. 봄이가 이상함을 느끼고 여름이를 쳐다보는데, 여름이는 시선을 느꼈는지 재빨리 도망간다. 그렇게 식탁에 남은 봄이, 가을이, 겨울이가 머리를 맞대고 여름이의 치아를 확인하기 위한 비밀 회의를 시작한다. 이번 작전명은 “여름이의 치아 검증!” 주력은 가을이, 플랜 A는 아픈 척하며 여름이에게 접근하는 것!

가을이는 볼을 잡고 아픈 척 하면서 여름이에게 접근한다. “치아 아프면 나처럼 돼!” 가을이가 진지하게 말하자, 여름이는 “치아?!” 하고 깜짝 놀라 도망간다. 봄이는 “이대론 안 되겠다!” 하고 플랜 B를 꺼낸다. 이번엔 겨울이 등장! 손에는 초콜릿을 들고, 여름이를 유혹한다.

달콤한 초콜릿을 여름이가 잡으려는 순간, 겨울이가 외친다. “지금이야!” 숨어있던 봄이와 가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여름이를 붙잡고, 역지로 입을 벌려 충치 발견! “누나가 단 거 많이 먹지 말랬잖아!” 봄이가 여름이를 혼내며, 결국 치과로 끌려가게 된다. “걱정 마, 누나 손 잡아!” 겁내는 여름이를 위로하지만, 막상 치과에 들어서자 봄이가 더 겁먹는 반전!

말은 그렇게 해도 치과 특유의 소리나

분위기는 봄이를 겁먹게 하기 충분한 요소였다. 그래도 자신까지 겁먹어버리면 여름이는 더욱 겁먹는다는 생각에 일부러 괜찮은 척 위로 하고 있지만 무서움은 피할 수 없나 보다. 그렇게 걱정을 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 여름이의 차례가 되었다. 치과실로 들어가자 같이 따라 들어온 봄이 의사선생님께 말한다.

“선생님..저희 여름이 안 아프게 진료해주세요..” 걱정과 떨림이 가득한 목소리다.

의사선생님은 봄이의 말을 듣고 차분하게 웃으며 말한다. 치아 안에 마취를 하면 전혀 아프지 않다고, 마취할 때만 아주 살짝 따끔 거리는거 빼곤 괜찮다고.

그러니 동생이 마취할 때 손을 꼭 잡아주고 있으면 무섭지 않을 거라며 봄이의 손과 여름이의 손을 겹치며 말하신다. 서로의 온기가 전해져서 긴장감을 덜어주는 것 같아 아주 잠깐은 마음이 안정 되었다. 그렇게 진료가 시작될 때 쯤 봄이는 밖에서 다시 긴장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후에 진료가 끝나고 여름이가 나온다.

표정을 보니 아까랑은 전혀 다른 표정으로 봄이를 보며 말한다. “전혀 안아팠어! 누나!” 그 말에 긴장을 푼 봄이 달려가며 여름이를 꼭 안았다. 다행이다,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여름이의 머리를 쓰담쓰담 한다. “걱정시켜서 미안해 누나” 라는 말과 함께 오늘 하루가 지나간다.